

KRIVET Issue Brief

발행인 박영범 | 발행일 2012년 7월 15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제7호 2012. 7. 15

대졸 하향취업의 고착화 현상과 노동시장 효과

-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하향취업한 이들의 경우 10명 중 적어도 6명은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하향취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짐. 특히 고착화 비중은 최근 대졸자일수록 커지고 있음.
- 지방대학 출신자의 하향취업 비중은 수도권대학보다 4.4%p 높음. 또한 하향취업 고착화 정도도 거의 2배 가량 높인데, 수도권대학 출신자는 10명 중 4명이, 지방대학 출신자는 10명 중 8명이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더라도 하향취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짐.
- 적정취업자와 비교할 시 하향취업자의 임금은 69.3% 수준에 불과하고, 비정규직 비중은 2.5배나 높으며, 전공·직무 불일치 비중도 71.3%로 2.5배 가량 높음.

01

하향취업 고착화 해소의 필요성

하향취업이란

근로자가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교육수준의 일자리에 일하는(업무를 수행하는) 경우로 정의

하향취업 고착화는 교육-노동시장 연계의 비효율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

- 하향취업은 개인적으로는 교육투자수익률의 저하, 국가적으로는 교육 및 인재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
 - 하향취업은 비자발적 이직 성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에 따라 고용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
 - 하향취업은 교육-노동시장 연계의 불일치를 유발하여 인재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'악순환 고리'의 역할을 할 수 있음.
- 대졸자의 하향취업은 고졸자의 일자리까지 잠식하여 고졸자들이 더욱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내려가는 도미노 현상을 초래
- 따라서 하향취업에 대한 현황 및 발생 원인 분석에 근거한 정책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,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까지 연결
- 한국고용정보원의 「산업·직업별 고용구조조사」(2006)에 따르면, 대졸 이상 하향취업자 규모는 205만 명으로 추산

02

분석자료

분석자료

-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「교육-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」 자료(2009~2011년)

- 1982년, 1992년, 2002년에 4년제 대학을 마친 졸업생 각각 2,073명, 3,018명, 3,000명 등 총 8,091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상황, 고용 상황, 직업력, 전공-직무일치, 전공-숙련일치, 학력수준-업무 내용 일치 등에 대해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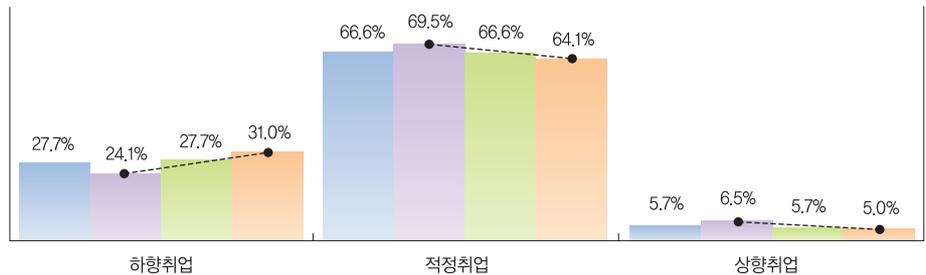
- 설문지에 “현재 하고 있는 직장(일)에서의 업무 내용이 본인의 학력수준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?”라고 질문하여, “학력수준이 업무내용에 비해 높음”이라고 응답한 경우 **하향취업**으로, “학력수준이 업무내용에 비해 적당함”으로 응답한 경우 **적정취업**으로, “학력수준이 업무내용에 비해 낮음”으로 응답한 경우는 **상향취업**으로 분류하였음.

03

하향취업 규모와 변화: 하향취업 함정(trap)인가? 가교(bridge)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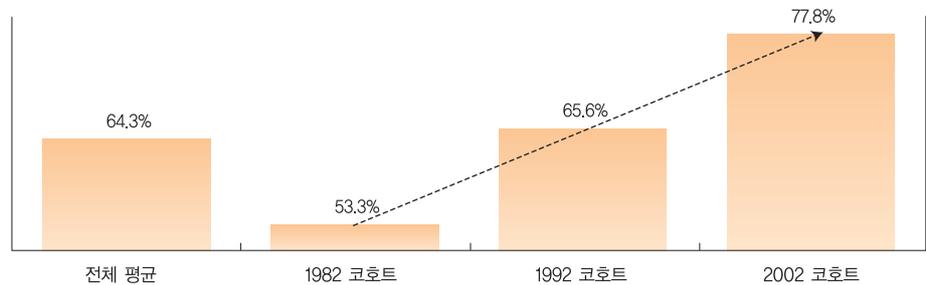
하향취업 고착화, 일단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함정

- 첫 직장 기준으로 대졸 하향취업자의 비중은 평균 27.7%에 이르며, 최근 대학 졸업자일수록 그 비중이 높음.
 - 1982년 대학 졸업 코호트의 경우 24.1%에서 1992년 27.7%로, 2002년 대학 졸업 코호트는 31.0%로 하향취업의 비중이 점차 상승. 반대로 적정취업 및 상향취업자의 비중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



[그림 1] 대학 졸업 후 첫 취업 직장에서의 하향취업 비중 변화

-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하향취업한 이들의 경우 10명 중 적어도 6명은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더라도 하향취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함.
 - 대졸 하향취업자가 [첫 번째 직장→두 번째 직장→세 번째 직장]까지 계속적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하향취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확률(하향취업 고착도)은 64.3%
- 대학졸업년도가 최근일수록 하향취업자가 직장 이동시 하향취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확률은 더욱 상승
 - 졸업 코호트별로 보면 1982년 53.3%, 1992년 65.6%, 2002년 77.8%로 졸업년도가 최근일수록 하향취업 고착화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추세



[그림 2] 대학 졸업년도별 하향취업 고착화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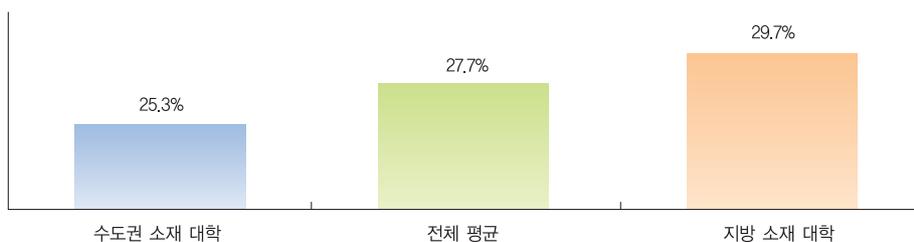
| 각주 |

1) Cox'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한 하향취업 탈출 확률을 분석 결과, 개인적 특성으로서 성별 및 연령, 노동시장적 특성으로서 산업, 직업, 사업체 규모, 종사상 지위, 교육적 특성으로서 대학 학점, 복수·부·연계전공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추정치는 유의성이 없었음.

-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하향취업 상태에 빠지면,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교육적 특성, 노동시장적 특성 등은 하향취업에서의 탈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¹⁾. 더구나 전공-직무일치로 판단한 교육-노동시장 연계 특성도 하향취업에서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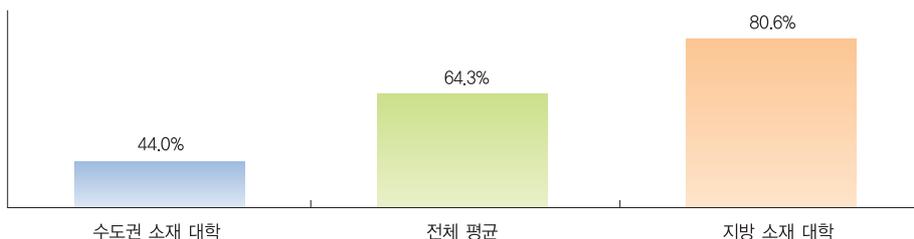
| 하향취업 고착화,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에게서 더 심화

-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의 하향취업 비중은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보다 약 4.4%p 높음.
 - 특히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의 하향취업 비중은 24.8%로 더욱 낮음.



[그림 3] 대학 소재지별 하향취업 비중

- 하향취업 고착화 정도는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들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.
 - 대졸 하향취업자가 [첫 번째 직장→두 번째 직장→세 번째 직장]까지 계속적으로 이동할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44.0%가 하향취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 반면에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거의 2배 수준인 80.6%가 하향취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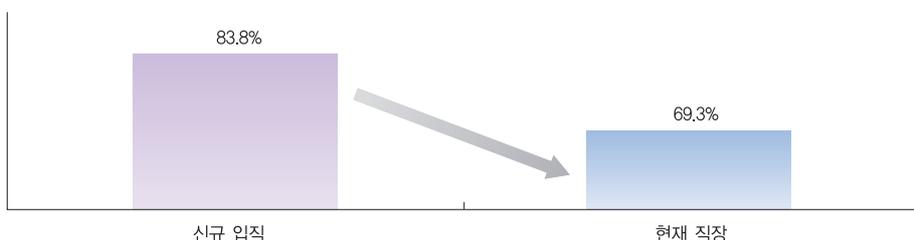
[그림 4] 대학 소재지별 하향취업 고착화 비중

04

하향취업 고착화와 노동시장 효과

| 낮은 임금 수준, 높은 비정규직 비중 등 하향취업자의 근로조건은 열악

- 하향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적정취업자(=100%)에 비해 낮음. 특히 신규 입직 직장의 경우 83.8%에서 현재 직장의 경우 69.3%로, 직장 경력이 증가할수록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



[그림 5] 하향취업자의 직장별 임금 수준 격차(월급 기준)

| 주 |
적정취업=100 대비 비중

- 하향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적정·상향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중보다 2.5배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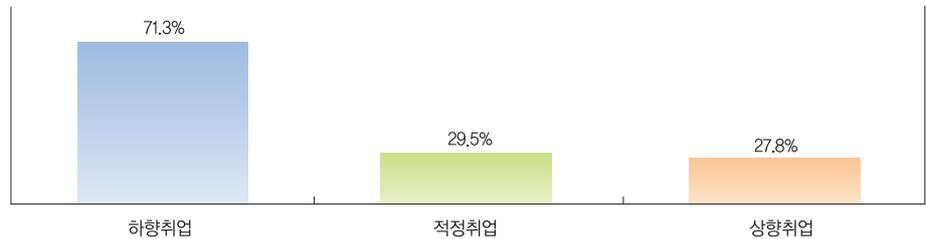


주 비정규직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포함

[그림 6] 하향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중 비교

하향취업자의 경우 전공-직무 불일치 비중 또한 높음

- 대졸 하향취업자의 전공-직무 불일치 비중은 71.3%로서, 10명 중 약 7명이 현재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 이는 적정 및 상향취업자보다 2.5배 가량 높은 수준임.



[그림 7] 하향취업자의 전공-직무 불일치 비중 비교

05

정책 제언

- 중고교단계의 직업교육 강화와 과도한 대학진학 지양을 위한 진로교육체제 구축
 -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경로에 대해 적극 홍보
 -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, 학생이 본인의 적성 및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종 및 기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강화
 - 학생들에게 상세한 직업정보와 교육-노동시장 이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세계정보 등 진로 정보통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 추진
 - 교육과정 개발·운영에 산업계 인사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교육내용의 현장성을 확보하는 등 현장·취업 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
- 기업의 열린 고용 확대 유도과 지원
 - 학력 또는 출신대학 등 인재 가치 및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보다는 관련 지식, 핵심 역량과 직업기초능력 등 업무 수행 능력을 반영하는 기준에 근거한 채용시스템 도입
 - 능력에 따른 승진 및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인사·노무관리체제 개선 유도

전 재 식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)